

수술 뒤 강아지 조롱한 동물병원 '공분'

발치 수술 끝낸 생후 8개월 강아지, 적정치료 없이 온갖 학대 병원 내 CCTV 영상 공개...견주 "사망 경위 불분명" 고소 방침 병원측 "염증 냄새 제거 시도...직업 의식 어긋난 행동은 사과"



지난 1일 광주 지역 한 동물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다. (사진 =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

광주 지역 한 동물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는 등 온갖 학대를 하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에 사는 한 반려견 주인 A(34)

씨는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키우던 푸들 반려견이 광주 남구 동 동물병원 의료진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해당 동물병원 처치실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사진 속에는 의료진이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치료 중이던 강아지의 온 몸에 분사하는 듯한 행동, 이를 보던 의료진이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달 1일 유치(幼齒) 발치 수술을 받은 강아지는 1시간 가까이 산소방(회복실) 등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강아지에 화장실용 탈취제 등을 뿌리고 털까지 깎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죽은 강아지를 보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미용을 마친 상태 등을 보니 의문투성이었다"면서 "확인해보니 수술 직후 체온·혈압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온을 올려줘야 할 강아지에 오히려 워터리스(Waterless) 샴푸를 잔뜩 바르고 화장실용 탈취제·디퓨저 등을 분사했다"며 "고통스러워 하는 강아지를 보며 의료진이 '깔깔' 웃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났다"고 전했다.

A씨는 "수술만 부탁했는데 강아지 털 미용까지 했다. 생후 8개월에 체중이 750g에 불과한 강아지가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라고 말하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강아지의 사망 경위 등을 정확히 알고 싶지만, 병원 측은 '미안하다. 향수 등을 뿌린 것이 사망 원인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한다"며 "동물을 치료해야 할 의료진이 오히려 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역설했다.

A씨는 해당 동물병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이 반력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반려견을 키우는 누리꾼을 중심으로 해당 병원에 대한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동물병원 측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회복 과정 중 아이(강아지)를 좀 더 신경 써주기 위해 빗질을 했다. 학대 의도는 없었다. 다만 염증 냄새를 없애기 위해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한 점은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전날 "강아지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점, 직업 의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신봉우기자

분양대행사와 짜고 억대 손해 끼친 주택조합 관계자들 징유

조합원 자격 없는 임의세대 분양 대행 수수료 청구

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는 세대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업체의 과태료를 조합에 부담케 한 이들이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 주택조합장 B(62)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2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조합 규약과 분양 대행 용역 계약을 어기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

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건설사 과태료 수익 원을 조합에 부담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광주 북구에 42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에겐 공급하겠다고 조합원 252명을 모집했다. 2016년 3월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1·2차 분양 대행사가 모집한 세대 중 25세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임의 세대에 팔리기도 분양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게 공모했다.

분양·광고 대행사가 이 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과태료 4억7000만 원을 부과하자 과태료를 조합원들의 부담금으로 납부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낸 뒤 상환하

기도 했다.

이들은 '임의세대 분양은 추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부담금이 줄어든다. 조합과 건설업체가 합의해 범 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상 조합이 적법하게 임의세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의 전체 공급 세대 중 조합원에겐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봤다.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분양 해야 하고, 잔여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의분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김민정기자

사고현장서 시민들이 차량 들어 운전자 구조

부산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에 30대 남성의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 10여 명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려 남성을 구조했다.

6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51분께 울산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 연양휴게소 3km 지난 지점에서 쏜렌토 차량이 단독사고가 나와 30대 운전자 A씨가 하차해 차량 앞에 앉아 보행사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오던 소나타 승용차가 쏜렌토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다리가 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에 끼였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차량 7대가 갓길에 멈춰선 뒤 운전자와 동승자 등 10여 명이 차량에서 내렸고, 이들은 힘을 합쳐 사고차량을 들어서 A씨를 구조했다.

해경, 밤낚시하다 바다에 추락한 40대 구조

밤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해경이 구조했다.

6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5분께 고흥군 도양읍 녹동 신항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A(41)씨가 바다에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녹동파출소 순찰구조팀이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낚시 도중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으며, 저체온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구조 당시 바닷물 온도가 10도 이하로 매우 차가운 상태였다"며 "해안가에서는 야간에 급격히 혼자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미끄러운 구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안서 여성 강제추행, 전남경찰 간부 입건

전남 무안경찰서 간부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 A씨(5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 무안군 무안읍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 지인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2일 오전 1시부터 2시 사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후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의견 등을 반영,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잃어 화 난다' 오락기 60여대 부순 50대 입건

성인 오락실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게임기 수십여대를 부순 50대가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성인 오락실에서 돈기로 오락기를 부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서구 양동 한 성인 오락실에서 돈기로 게임기 60여 대 액정 등을 파손한 혐의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오락 도중 가진 돈을 모두 잃고 행패를 부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주의 귀가 권유를 거둬 뿌리치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가게 밖에서 들고 온 돈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친구신분증 들고 비행기 탑승 시도 40대 입건

수배자 신분증 숨기려고 친구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3일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A(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광주공항에서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분증 사진의 모습과 실제 용모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공항 보안 검색대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항 상황실로 인계된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공항에서는 지난 7월과 10월에도 친구와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20대 여성과 초등학생이 제주에서 적발된 바 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